2021년 / 12월 4주차

온다라 교양플라자 수강생 모집 안내

우리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학교 고전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온다라 교양 플라자가 대면 비대면 강좌로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 또는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 센터(063-220-3203)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가가는 인문학, 함께하는 인문학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강의 주제는?

[1부] 국내 학자 초청

차시	일자	시간	주제	강사
1	11월 4일(목)	16:00 ~ 18:00 (2시간)	조선시대 사람들의 최애템 '담배'	장순순 (전주대학교 HK연구교수)
2	11월 11일(목)		항일운동을 도운 일본인 노동자,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	변은진 (전주대학교 HK교수)
3	11월 18일(목)		소설과 영화 사이, 장아이링의 「색 · 계」	김명희 (전주대학교 HK연구교수)
4	11월 25일(목)		눈이 즐거운 지역 이야기	홍성덕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2부] 국외 학자 초청

* 국외 학자 오프라인 강의는 이원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시	일자	시간	주제	강사
5	12월 2일(목)	16:00 ~ 18:00	황해도 연안군 지역의 농민과 저수지 이야기	홍창극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日本 一橋大学)
6	12월 10일(금)		일제강점기 조선교회의 자치와 자립 -최중진(崔重珍)의 자유교회와 그 주변	배귀득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日本 立命館大學)
7	12월 16일(목)	10:30 ~ 12:30	구별된 사람들: 조선 사회 속의 천주교 신자 I	드버니아 토레이 (Deberniere J. Torrey, University of Utah)
8	12월 23일(목)		구별된 사람들: 조선 사회 속의 천주교 신자 II	드버니아 토레이 (Deberniere J. Torrey, University of Utah)

[랜선 체험]

with. 꿈드림원예힐링센터

원예를 활용한 마음의 힐링 찾기
스칸디아모스 원목액자 만들기

* 체험 관련 안내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김건우 교수와 함께 만나는 孔子 이야기

우리 연구원에서 2022년을 여는 목요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전주의 목요일 겨울밤은 공자를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김건우 교수(우리 연구원 상임이사)와 함께하는 "공자 이야기" 강좌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한자를 잘 모르는 분들도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강좌로 준비하셨습니다.

강의는 2021년 마지막 목요일인 12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강좌는 6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뜻이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오나 아쉽게도 장소관계로 열 다섯 분 선착순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빠른 결심은 한 겨울 추위를 녹이는 목요일 밤과 만나시게 됩니다.

◆ "공자 이야기"

◎ 개　　강 : 2021년 12월 30일(목) 18시 30분
◎ 강의시간 : 90분 내외
◎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강　　사 : 김건우(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상임이사)
◎ 대　　상 : 연구원 회원
◎ 회　　비 : 무료
◎ 강좌목록

1강 야합_공자의 탄생과 가족
2강 난신적자_공자와 춘추시대
3강 꿈속 주공_공자의 이상
4강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_공자의 제자들
5강 집 잃은 개_공자를 바라보는 시각
6강 태산이 무너지고_공자의 죽음 그 너머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연구원 사무국(063-286-300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맑은 눈의 시인 별이 되다 – 1992. 12. 22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였던 이광웅. 늦은 나이에 문예장학생으로 원광대학교에 입학한 후 시를 쓰며 아이들과 국어를 나누던 그는 1982년 이른바 "오송회 사건"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좌경용공분자가 되었다. 소나무 아래서 다섯명의 교사가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판사는 징역 7년으로 화답했다.

그는 이리 남성 중학교(현 익산 남성 중학교)1학년 때 「김노인」이라는 단편 소설과 시를 교지에 발표하였고, 이리 남성 고등학교(현 익산 남성 고등학교)재학 시절에는 각종 백일장 대회에 나가 장원을 차지하는 등 문학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1967년 『현대 문학』에 청마 유치환의 추천과 1974년 『풀과 별』지에 신석정의 추천으로 등단하여 공식적으로 시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의 삶은 그날 이후 불온분자로 낙인찍혔다.

문학의 진실한 힘을 믿고 실천하며 역사를 직시하며 살아간다는 댓가로 그는 40대의 절반을 차가운 철창에 갇혀야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그가 무신론자가 된 것도 감옥에서였고, 삶에 대한 가치, 인간의 신념, 분단민족의 아픔에 보다 절실한 의식을 갖게 된 것도 그곳이었다. 시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무기조차(필기도구) 빼앗긴 상태였으므로 운동하며 주워온 못을 갈아 우유 곽에 시를 썼고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 책표지를 뜯어 붙여놓는 방법으로 만들어 낸 시들의 생명을 지켰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복역 4년 8개월만에 풀려난 후 복직되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시 해직당했다. 시인에게 이 땅은 양심을 허락지 않았던 것이다. 고문후유증과 해직으로 인한 생활고는 그에게 감당하기 불가능한 암세포를 전했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났다.

누구보다도 맑았고 역사 아파에서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시인 이광웅. 그늘진 땅에 한줄기 햇살이고자 했던 그에게 이 땅은 그것이 "죄"라고 낙인찍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6년이 지난 2008년 11월 25일 법원은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150여억원의 배상액을 확정했지만 그의 숨을 돌려놓을 수는 없었다.

이 땅에서 진짜
술꾼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술을 마셔야 한다

이 땅에서
참된 연애를 하려거든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해야 한다

이 땅에서
좋은 선생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교단에 서야 한다

뭐든지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 이광웅 (李光雄) '목숨을 걸고' 전문 -

29년 전 오늘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한 시인이 하늘의 별이 되었다.